

대유플러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광주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2800가구 1년 사용 전력 생산 수소자동차 등 사업 점차 확대



대유플러스는 최근 하남산단 위니아대우 본사에서 '대유타양광 발전소' 6·7호기 준공식을 열었다. 왼쪽은 대유타양광 발전소 7호기.

대유플러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위니아대우 물류창고 건물 지붕에 대유타양광발전소 6·7호기 준공을 신호탄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유플러스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업단지 내 위니아대우 본사에서 '대유타양광 발전소' 6·7호기 준공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유타양광발전소 6·7호기는 광주에 있는 위니아대우 물류창고 건물 지붕에 총 2.4메가와트(MW) 규모로 지난 3월 착공해 7월 준공했다.

이 곳에서는 월간 약 280메가와트시

(MWh) 이상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광주 지역 28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연간 1300여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이 사업에는 대유플러스가 계열사인 위니아대우, 대유플러스, 대유크림이 참여해 주요 원자재 공급 등 다양한 업무 협업을 진행했다. 또 설계와 구매 및 시공을 담당하는 EPC 사업자는 KT가 참여해 기업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KT-MEG 관제센터의 발전소 정보모니터링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을 원격 관제하고 발전 효율 저해 요소를 사전 검출해 신속 대응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대유타양광 발전소 1·2호기 준공한 이래 자체적으로 총 3.8M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상호 대유플러스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준공한 대유타양광 발전소 6·7호기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형 태양광발전소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3.34 (-1.02)
- ↑ 금리(국고채 3년) 1.33 (+0.01)
- ↑ 코스닥 674.78 (+0.72)
- ↑ 환율(USD) 1178.30 (+3.80)

여름철 전력수급 "훈련도 실전처럼!"



한전, 대응체계 점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22일 오후 나주 분사 재난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이상고온 지속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기의 불시고장으로 인해 예비력이 200만kW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전

력수급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김종갑 사장은 이날 훈련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안정적 전력수급은 한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며, 공급설비 이상이나 기온변동에 따른 폭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력수급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의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훈 기자 lion@kwangju.co.kr

직장인 절반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너무 적다"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12~19일 직장인 69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찬성 42%, 반대 58%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상률이 너무 적어서'가 44%로 가장 많았고 '1만 원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2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이유로 '물가 상승'(36%)을 가장 먼저 꼽았다. 반대하는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삭감은 13%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얼굴

"지역통계 산실로 구축해 나갈 것"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정확한 현장조사, 지역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실용통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호남지방통계청을 지역통계 산실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6대 호남지방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이호석(57·사진) 청장은 "호남통계청이 통계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청장은 또 "통계 조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통계청 성과관리팀장·혁신행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청 내부에서는 예산·조직관리 및 성과 창출 분야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하나은행, 베트남 은행 투자 자산규모 1위 은행에 1조원

KEB하나은행이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에 1조원을 투자한다.

하나은행은 22일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BIDV는 새 주식을 발행하고, 하나은행은 새 주식을 총 1조249억원에 인수한다.

BIDV는 1957년 설립돼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분 95.3%를 보유한 국영 상업은행이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자산이 원화 환산 66조3000억원, 순이익은 3809억원이다.

하나은행은 "BIDV는 매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 현 상태도 안정적인 배당과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일본제품 안 팔아요"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22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동시장 건어물시장 상인회 제공>

전남 브랜드 쌀 외면한 '홈플러스'

광주 롯데·이마트 3종류 판매

국내 3대 대형마트 가운데 '홈플러스' 매장만 전남 브랜드 쌀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전남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 롯데마트에는 담양 금성농협, 이마트에는 해남 옥천농협이 쌀을 납

품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에는 전남 브랜드 쌀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의 경우 총 3종류 쌀 가운데 '한눈에 반한 쌀' 등 3종류의 전남 쌀이 판매되고 있고, 롯데마트 4곳도 쌀 9종류 가운데 전남 쌀 3종류를 팔고 있다.

특히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에서는 오는 24·30일 열리는 '전남 농수산물 특

별 판매전'을 통해 전남 쌀이 입점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광주하남점·동광주점·계림점 등 3곳은 지난해 7월까지 곡성농협의 '황후마미 심청쌀'을 판매했지만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홈플러스는 연간 4만t의 쌀을 판매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77만6000t이 생산된

전남 쌀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브랜드 쌀은 판매부진과 납품단가 조정 문제로 지난해 7월부터 거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 매장에서 해남 등 전남·전북 지역 쌀 8000t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곡성농협을 포함한 지역 단위농협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태양광·전력·전선·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공여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외에 농도 역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